노교수의
마지막 학교건축 강의

CBS

문수경 기자

기자가 하카타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우라카와 히로무(가운데), 건축가 구도 가즈미, 호리바 히로시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수경아, 이번엔 네가 해외기획취재 공모 준비 좀 해봐. 다른 팀원들도 해외 출장 골고루 갈 수 있게(권민철 당시 뉴미디어부 부장.)"

2018년 12월 끝자락. 팀원 3명이 유럽 출장을 가 있을 때, 부장은 팀 점심에서 고참인 나를 콕 찍어 말했다. 다른 저년차 후배들에게도 해외출장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 부장의 마음이 느껴졌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획안 주제는 '획일적인 학교건축'으로 정했다. '건알못(건축을 알지 못하는 자)' 이지만 나는 평소 건축에 관심이 많았다. 때마침 교육부가 학교공간혁신 사업에 5년간 9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운 터라 시기적으로도 적절했다.

2019년 1월, 나는 야심차게 기획안 준비에 들어갔지만 좀처럼 진척이 없었다. 어영부영하다 보니 마감(3월8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귀인'을 만나다...류호섭 교수님과의 첫 인연

취재 방향과 방문할 학교에 대해 조언해줄 전문가가 절실했다. 애간장을 태우던 찰나, 뜻밖의 귀인이 나타났다. 지금은 고인이 된 류호섭(동의대 건축학

과·1956~2019) 교수님이다.

예순을 훌쩍 넘긴 류 교수님은 국내 최고 일본 학교건축 전문가였다. 일본 학교건축 혁신사례를 조사하던 중 하카타초등학교가 눈에 띄었고, 나는 이 학교 신축에 관한 책(학교를 만들자·구도 가즈미 지음)을 류 교수님이 번역한 사실을 알게 됐다.

2월25일 오전, 초면의 류 교수님에게 무작정 전화했다. 류 교수님은 국내 학교건축의 문제점에 대해 열변을 토한 뒤 덤덤하게 말했다 "내가 갑자기 입원을 했어요. 말을 오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조금 쉬었다가 20분 후에 마저 얘기합시다. 후훗."

그제야 나는 류 교수님의 몸 상태를 눈치챘다. "교수님, 그럼 제가 오후 2시에 다시 전화할게요." 류 교수님은 몇 나라를 추천해주면서, 당신 대신 조언을 구할 미래교육환경학회 소속 일본 학교건축 전문가(최병관 교수)와 유럽 학교건축 전문가(조진일 박사)의 연락처를 건넸다.

고맙고 미안했다. 몸이 아프면 만사 귀찮은 법이다. 내가 류 교수님 같은 상황이었다면 전화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을 터다.

하카타초등학교 '표현의 무대' 모습. 이곳은 수업과 강연, 공연 등이 이뤄지는 다목적 공간이다. 도로와 맞닿아 있어 사람들이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구조다.

하카타초등학교는 교실과 복도 사이에 벽이 없는 '열린 학교'다. 교사와 학생 모두 이러한 환경에 적응해 수업이 원활하게 이뤄진다.

이후 기획안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최 교수와 조 박사는 성심성의껏 도와줬고, 나는 3월25일 언론재단으로부터 기획안이 당선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경쟁률이 역대 최고였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

출장은 7월 초 영국·독일, 9월 말 일본을 가기로 했다. 유럽 출장을 준비하면서 가끔씩 류 교수님 생각이 났지만 따로 연락하지는 않았다. '그저 잘 계셨으면' 하고 바랐다. 그런데 6월13일, 류 교수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문 기자, 최병관 교수한테서 기획안 당선됐다는 얘기 전해 들었어요. 6월18일에 제가 있는 곳에서 기획안 보며 얘기 좀 합시다."

4개월 만이었다. 수화기 너머 류 교수님 목소리는 활기찼고 들떠 있었다. 나는 '교수님 병세가 호전됐구나' 지레짐작하며 안도했다. 그런데 류 교수님이 보내온 문자 메시지에 암 전문 요양병원 명함이 찍혀 있었다. 나는 한동안 명함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류 교수님이 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 고맙고 미안했다.

류호섭 교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

6월18일, 요양병원 2층 로비에서 환자복을 입은 류 교수님과 처음 마주했

다. 류 교수님은 자그마한 체구에 야윈 모습이었다. 다소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학교건축 얘기를 시작하자 어느새 열강하는 교수님으로 돌아갔다.

인터뷰한 지 30분쯤 됐을 때 류 교수님 휴대폰이 울렸다. 알고 보니 위층 병실에서 기다리던 사모님이 건 전화였다. 인터뷰 시간이 길어지자 걱정이 된 것이다. 하지만 류 교수님은 진동음이 여러 차례 울린 뒤에야 전화를 받고 "알았어" 한마디 툭 내뱉은 후 말을 이어갔다.

20분이 더 흘렀을까. 급기야 사모님이, 인터뷰를 진행한 로비 한쪽 휴게실 앞까지 찾아와 류 교수님에게 '이제 그만 끝내라' 고 눈짓했다. 류 교수님은 멋쩍은 표정으로 주섬주섬 일어났다. 얼굴에는 뿌듯함과 아쉬움이 반반씩 묻어났다.

그러면서 "몸 상태가 괜찮으면 나중에 구도 가즈미 선생에게 인터뷰 섭외 메일을 보내주겠다"고 싱긋 웃었다. 구도 선생은 하카타초등학교 건축가로, 류 교수님과 친분이 두터웠다. 하카타초등학교는 내가 취재하려는 곳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다. '장시간 인터뷰가 투병 중인 교수님 몸에 부담을 준 건 아닐까' 라는 생각과 '할 일이 있으면 투병생활에 활력이 되지 않을까. 교수님 마음을 고맙게 받자. 강단이 그리울 교수님의 제자가 되어 드리자' 는 생각이 교차했다.

류호섭 교수님과의 두 번째 만남

나는 7월 초 유럽 출장을 다녀온 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취재와 일본 학교 섭외에 들어갔다. 취재하려던 학교 4곳 중 2곳(사이타마 '시키초등학교' 도쿄 '하루미중학교')은 가능, 2곳(도쿄 '이치가와 제7중학교' 후쿠오카 '하카타초등학교')은 불가를 통보했다.

그때 '구도 선생 인터뷰 섭외를 도와주겠다' 던 류 교수님의 말이 생각났다. 나는 구도 선생에게 인터뷰 요청 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알고 보니 일본인들은 공문을 주고받을 때 메일이 아닌 팩스를 주로 이용한다. 메일을 보내면 전화로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이런 꿀팁을 귀띔해준 것도 류 교수님이었다.

시키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취재진 앞에서 직접 학교 소개 PT를 하는 정성을 보여줬다.

류 교수님은 내게 인터뷰 섭외 공문을 한글과 영어 버전으로 만들라고 한 뒤, 완성된 공문의 문구를 일일이 수정·첨삭해줬다. 이후 구도 선생 비서 야나기 료코 선생과 수차례 메일을 주고받으며 의견을 조율했다.

며칠 후 료코 선생은 "하카타초등학교 측으로부터 9월 말 방문 취재를 허락받았다. 취재 당일, 구도 선생이 건물 곳곳을 함께 둘러보며 설명해주겠다"고 류 교수님에게 답 메일을 보내왔다.

준비가 착착 진행됐다. 얼마 후 류 교수님은 "하카타초등학교에 관한 질문을 정리해보라"고 했고, 나는 "메일로 질문지를 보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교수님은 갑자기 "요양병원으로 오라"며 쏘아붙이듯 말했다. "예"라고 대답했지만 짐짓 당황스러웠다.

나는 속으로 툴툴거렸다. '퇴근 시간에 목동(회사)에서 분당(요양병원)까지 2시간은 족히 걸릴 텐데, 그냥 전화로 얘기하면 좋으련만.'

8월5일, 뚜벅이족인 나는 지인 차량을 빌려 타고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심한 교통체증 탓에 2시간 가까이 지각했다. 짧은 시곗바늘은 '9' 를 가리켰다. 나는 몸 둘 바를 몰랐다. 교수님 안색부터 살폈다.

걱정과 달리 류 교수님은 컨디션이 나빠 보이지 않았고, 곧바로 '열강 모드'로 들어갔다. 내가 준비한 질문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핀 후 하카타초등학교 공간들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질문을 구체적으로 바꿔보라"고 조언했다.

취재가 확정된 세 학교 모두 지역사회에 기반한 '커뮤니티 스쿨(Community school)'이었다. 류 교수님은 세 학교의 차이점을 조목조목 짚은 뒤 각각의 취재방향을 제시했다. "시키초등학교와 하루미중학교 질문지를 만들어보라"고도 했다.

인터뷰를 마치자 오후 10시가 넘었다. 사위가 어두웠다. 차량에 앉자 눈꺼풀이 내려앉았다. 미안했다. '내색은 안 했어도 교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실까.' 부끄러웠다. '분당까지 오라고 했다고 속으로 툴툴거린 내가.'

류호섭 교수님과의 세 번째 만남

9월9일, 류 교수님과 세 번째 만났다. 열흘 전쯤 내게 "취재하려는 학교에 대한 자료를 주겠다"고 문자를 보내왔던 터다.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렇게 할게요."

이날 류 교수님의 표정은 매우 밝았다. "오랜만에 부산 집에 내려갔다가 일본 학교 자료 좀 챙겨왔어요. 후훗." 그러더니 USB에 있던 자료를 내 노트북으로 옮겼다. USB에는 내가 취재하려는 학교의 도면도와 사진 파일이 빼곡했다. 도면도가 익숙지 않은 나를 배려해 꼼꼼한 설명도 곁들였다. 왠지 가슴이 먹먹했다.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비가 흩뿌렸다. 두 뺨을 타고 흐른 건 빗물이었을까, 눈물이었을까.

하루미중학교 옥상에는 개폐식 수영장이 있다. 아이들은 지붕을 열면 수영을 하면서 파란 하늘을 마음껏 볼 수 있다.

시키초등학교는 '열린 학교'다. 교무실 역시 벽이 없는 열린 구조다.

9월 말(9월24~27일) 일본 출장은 순조로웠다. 류 교수님의 도움 덕분이었다. 류 교수님이 소개해준 구도 선생은 건강이 썩 좋지 않았음에도 인터뷰를 위해 남편이자 동료 건축가인 호리바 선생과 함께 도쿄에서 후쿠오카까지 한걸음에 달려왔다. 학교를 직접 지은 건축가와 교내 곳곳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는 건 귀한 경험이었다. 구도 선생은 인터뷰 중, 류 교수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활짝 웃었다. 나는 류 교수님이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때늦은 후회...류호섭 교수님과의 네 번째 만남

10월13일, 드디어 기사를 마감했다. 나는 마감 직후 류 교수님에게 연락했다. "10월21일에 찾아뵐게요."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작은 액수나마 자문료를 전달하고 싶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었다.

10월21일, 집을 나서려는데 류 교수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류 교수님은 옆에 있던 사모님과 상의한 뒤 "약속 날짜를 22일로 바꾸자"고 양해를 구했다. 하필 나는 22일부터 26일까지 가족과 제주도로 늦은 여름휴가를 떠나기로 했다.

류 교수님과의 약속을 10월28일 오후 5시로 미뤘다. 나는 이날 오후 3시 새벽 근무를 마치자마자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오후 5시 15분, 요양병원 앞에서 류 교수님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5시 35분, 2층 로비에서 문자를 보냈지만 역시 답변이 없었다.

영문을 몰라 답답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결국 나는 간호사에게 문의했다. 간호사는 뜻밖의 말을 전했다. "류호섭 환자, 퇴원 처리됐어요. 며칠 전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어요."

나는 류 교수님을 만나러 온 목적을 얘기했다. 간호사는 사모님에게 전화를 건 뒤 나를 바꿔줬다. "교수님이 점점 기억을 잃어가요. 지금 수술 대기실에서 차례 기다리고 있어요." 사모님은 울먹거렸다. 나는 위로는커녕 허둥대다가 말까지 더듬거렸다. "아, 저, 그럼, 다음에 찾아뵐게요."

그로부터 2개월이 흘렀다.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회복하셨겠지. 전화해도 괜찮겠지' 나는 혼자 멋대로 판단했다. 12월24일 퇴근길. 류 교수님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잠시 후 교수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류 교수님이 아닌 사모님이었다.

"저, 류호섭 교수님 아내예요."

"늦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CBS 노컷뉴스 문수경 기자예요. 교수님 한 번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아아, 교수님 11월에 돌아가셨어요."

크리스마스이브에 접한 비보. 속상하고 허탈하고 슬펐다. '조금 더 일찍 찾아뵐걸'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자문료는 부의금이 됐다.

생의 마지막은 류호섭 교수님처럼

'왜 류 교수님은 삶의 끝자락에서 생면부지 기자에게 지극정성을 쏟았을까.'

류 교수님을 알고부터 계속 들었던 궁금증이다. 이 궁금증은 지난 1월 고 이태석 신부님(1962~2010)의 일생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 마 톤즈 2'를 본 후 다소나마 풀렸다.

이 신부님은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 마을에서 8년간 봉사활동을 하다 2010년 선종했다. 이곳에서 그는 사제이자 의사, 건축가, 선생님, 음악가로 헌신했다.

하카타초등학교 도서관 창문 한켠에 아이들이 만든 종이꽃 화분이 놓여 있다.

총과 칼 대신 악기를 든 아이들은 잃었던 웃음과 생기를 찾았다. 브라스 밴드를 지휘하는 이 신부님 얼굴에선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이 신부님은 2008년 서울을 방문했을 때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톤즈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그는, 대신 요양차 머물었던 살레시오 수도회에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 활동했다. 밴드 앞에서 지휘봉을 흔드는 그는 즐겁고 행복해 보였다.

이 장면에서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 문득 류 교수님 생각이 났다. 류 교수님이 나를 헌신적으로 도와준 이유를 어렴풋하게나마 알 것 같았다. '강단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던 류 교수님은, 생이 다하는 날까지 자신이 평생 열정을 바친 학교건축을 나누고 알리고 싶었던 게 아닐까.'

류 교수님은 내게 학교건축 취재 노하우뿐만 아니라 자기 일을 사랑하는 법, 사람 마음을 얻는 법,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법까지 가르쳐줬다. 앞으로 힘든 일이 생겨도 그토록 마음 써준 류 교수님을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내 기억 속에 류 교수님은 암환자가 아닌 열정 넘치는 학교건축 전문가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 늦었지만 고인에게 이 한 마디를 꼭 전하고 싶다. "류호섭 교수님, 감사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PS)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많은 경험을 하게 이끌어준 권민철 부장(현 CBS 워싱턴 특파원), 건축 문외한인 내게 조언을 아끼지 않은 미래교육환경학회 전문가들, 내가 SOS를 칠 때마다 기꺼이 발과 머리가 되어준 염희옥 대표에게 감사한다.